

## ■ S-387 ■

### 갑상선으로 전이된 신세포암 1예

Department of <sup>1</sup>Internal Medicine, <sup>2</sup>General Surgery, <sup>3</sup>Path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ju, Republic of Korea

\*Jae-Geun Lee<sup>1</sup>, Youngro Yang<sup>2</sup>, Changrim Hyun<sup>3</sup>, Kwangsik Kim<sup>2</sup>, Gwanpyo Koh<sup>1</sup>, Daeho Lee<sup>1</sup>

Metastasis to the thyroid gland from distant cancer is rare, but must be distinguished from primary thyroid cancer. Here we report a rare case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to the thyroid gland. A 77-year-old man presented with a neck mass detected about 1 month ago. He had undergone right nephrectomy due to renal cell carcinoma 24 years ago and cholecystectomy due to multiple gallbladder stones 4 years ago. The patient was asymptomatic and his thyroid function tests were all in the normal range. A computed tomography of neck showed two large cystic and degenerating thyroid masses; 7.2×5.5 cm-sized on the left thyroid and 3.8cm×3.8cm-sized on the right thyroid. There was no lymph node metastasis. Fine needle aspiration (FNA) cytology showed a few atypical follicular cells with nuclear atypia that suggest papillary thyroid carcinoma. All of these results lead the patient to undergo total thyroidectomy. The histologic findings of the thyroid masses were solid growth and organoid pattern on most cells. Although the result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for thyroglobulin and thyroid transcription factor-1 (TTF-1) were negative, the positive result of that for CD10, vimentin and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indicated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to the thyroid.

## ■ S-388 ■

###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발현된 갑상선 유두암에 대한 1예

좋은강안병원

\*박정민, 김민성, 이창석, 이용규

**서론:** 갑상선기능항진증, 특히 그레이브스 병이나 중독성 선종에서는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거의 모든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며,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으면 갑상선암의 가능성은 일단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갑상선암은 내분비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중 가장 흔하고, 주로 유두암 및 여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 및 젊은 나이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갑상선 절제술등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병리조직 소견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예후가 좋은 종양질환이다. 저자들은 어지럼증과 쇠약감을 주증상으로 내원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서 경부초음파와 PET-CT, 세침 세포 흡인검사로 진단된 갑상선 유두암을 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1예가 있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례:** 특별한 과거력 없는 35세 여자 환자로 최근 생리 후 약 10여일 전부터 어지러움과 피곤함, 경미한 두통을 주소로 본원 가정의학과 내원하여 기본 검사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소견 보여 내분비 내과로 전과되었다. 가족력 및 과거력, 사회력상 특이 사항 없었으며, 진찰 소견상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이학적 소견상 전경부의 종창(swelling)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왼쪽이 더 크고, 견고하였다.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약하게 손떨림(hand tremor)이 있었고, 더위를 참기 힘들어 했다. (Heat intolerance) 검사실 소견상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free T4 2.18 ng/dL, T3: 301.3 ng/dL, TSH 13.3 uIU/mL, TSH receptor Ab: 0.42 체크되었고, 다른 혈액검사나 요검사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방사선학적 소견상 갑상선 초음파에서 양 엽의 비대, 1.8cm 크기의 저에코성 결절이 왼쪽 엽에서 관찰되었고, 1.3 cm 크기의 저에코성 결절이 오른 엽에서 관찰되었다. 환자는 FNA 시행 후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되어 PET-CT 시행 후 림프절 전이된 소견 보여 수술 위해 외과로 전과되어 수술 시행하였다. 수술은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선 좌엽은 1.8×1.5×1.1 cm의 11 gm무게로 잘 피낭화되어 있었으며 피낭내에 잘 구별되는 회황색의 단단한 결절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석회화된 부위를 나타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잘 분화된 여포 상피 세포암의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